

천정배 국민의당 대표 경선 후보 인터뷰

“위기에 빠진 당, 개혁 통해 재건 지방선거 승리에 정치 명운걸 것”

천정배 후보의 정치 역정은 파란만장하다. 개혁의 아이콘이자 호남을 대표하는 중진으로 활약하며 중앙 무대에서 주목받았던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울시장과 대선 등을 노렸지만 실패하고 19대 총선에서도 낙선,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이에 천 후보는 ‘광주 하방’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19대 국회 보궐선거에서 ‘호남 정치 복원’을 내세워 민주당의 아성을 허물고 무소속으로 당선되면서 국민의당 창당과 다당제의 물꼬를 텃다. 호남 민심을 뒤흔들며 정치판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대선 패배로 국민의당이 위기에 빠진데다 정치적 피로도가 겹치면서 천 후보의 위상도 예전같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번 당권 도전 결과는 천정배의 정치 역정을 가르는 최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천 후보는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진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을 재건할 책임자임을 강조하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혁신공천 통해 청년·여성 적극 영입

내년 광주시장 출마 안할 것

선거제도 개편 분권형으로 가야

민주당과 통합설은 마타도어

‘탈호남’은 당 분열·반목 불러

-개혁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국민의당이 먼저 제의하고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정치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며 중앙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 승자 독식 체제를 바꿔서 분권형으로 가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에는 문 대통령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요하다면 문 대통령과 담판하고 타 정당과 협상해

서 이를 관철시키겠다.

-민주당과의 통합설도 나온다.

▲완전한 마타도어다. 상대 진영에서 악의적으로 흘리는 구태종의 구태다. 광주에서 민주당의 기득권을 허물고 국민의당을 창당한 주역이 바로 저다. 통합설은 말도 안 된다.

-안철수 딜레마'에 대한 입장은.

▲천정배를 선택하면 당도 살리고 안철수도 살릴 수 있다. 천정배가 대표가 된다면 당내 개혁을 토대로 당을 재건할 것이다. 안 후보가 대표가 되지 않으면 성찰의 시간을 갖고 정치적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다. 특히 안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나가거나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고, 백의종군을 통해 재기의 동력을 마련할 수도 있다.

-바른정당과의 선거 연대는 없는가.

▲정치는 생물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바른정당과는 어렵다. 동병상련의 처지가 아니다. 국민의당은 호남 뿐 아니라 개혁 전제로 나가면 한국 정치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바른정당은 아직도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 햇볕정책에 대해 과감히 인정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

-호남 대표로는 호남에 묶인다는 지적도 있다.

▲했소이다. 국민의당은 온건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함께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호남과 비호남의 양 날개 체제다. 둘 중 하나만 꺾이면 추락한다. 이런 측면에서, 안 후보가 우려된다. 탈 호남을 통해 중도 보수 체제로 가면서 당의 분열과 반목을 부르지 않는다는 걱정이 든다. 절대 그렇게 되서는 안 된다. 대표를 떠나 당의 운명이 갈린다. 당이 깨지고 공멸한다.

-천정배 정치의 목표는.

▲‘자구구국(自救救國)’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자구’는 호남이다. 호남 정치인으로서 호남의 정당한 권리와 몫을 찾는데 기여하겠다. 결국 호남 기득권을 쟁기겠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민생 개혁 정치로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표가 있다.

-당이 명령하면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광주시장 도전 가능성은 있는가.

▲출마 않는다. 그동안 일관되게 광주시장 출마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호남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국민의당을 반드시 살리고 발전시켜야 한다.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호남 유권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지 않았나 생각한다. 경쟁 체제가 돼야 호남과 호남 정치가 발전한다는 것을 이미 체험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호남 배려에 나선 것도 국민의당 효과다. 그냥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 호남 민심과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당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담=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tuim@kwangju.co.kr

/정리=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무기직 채용 잡음

집단 면접 실시 변별력 없어

철도 무관 전공자 상당수 합격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최근 시행한 무기계약직 채용을 둘러싸고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채용이지만 예년과는 달리 조만간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지원자가 몰렸지만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채용 절차를 주먹구구 식으로 진행한 탓이다.

17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최근 근무원과 미화, 시설 등 무기계약직 37명 채용에 565명이 지원, 경쟁률 15.3대 1을 기록했다. 12명을 뽑는 역무직엔 무려 412명, 19명을 채용하는 미화직엔 107명이 지원했다. 광주철도공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지난 1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하지만 취업·인사 전문 기관인 인크루트에 의뢰했던 지난 2015년과는 달리 인사전형을 공사가 직접 맡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원자 중 서류 미비 2명을 제외 한 모든 지원자가 1차 관문을 통과하면서

서류심사부터 무용론이 제기됐다.

또 당락을 결정하는 면접(역무직)은 2개 조로 나눠 진행되면서 질문 내용 등이 서로 다르거나 짧은 시간(15분)에 4명을 한꺼번에 면접하는 집단면접으로 진행돼 변별력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공사 내부 면접관도 본부장 등 간부가 맡았던 기존 관례와는 달리 대부분 2급 팀장이 맡았다.

특히 철도 업무 경험자, 철도 관련 대학 졸업자 15명 중 합격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3개월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자 20여명도 지원했으나 1명만 합격한 반면, 디자인이나 체육 등 철도와 무관한 전공자 상당수가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도입, 면접관에게는 수험번호 등 최소 내용만 전달했다. 면접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비용이 1500만원이나 돼 포기했다”며 “내년부터는 서류, 필기, 면접 등에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美 메릴랜드주 다음달 5일 자매결연

나주 출신 주지사 부인 가교역

전남도는 미국 메릴랜드주와 우호관계를 넘어 결연을 맺는다.

전남도는 다음 달 5일 전남도청에서 메릴랜드 사절단과 함께 자매결연식을 연다 고 17일 밝혔다. 전남도와 메릴랜드주는 2013년 11월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교류활동을 이어왔다.

양 기관의 가교는 나주 출신의 주지사 부인(피스트레이드) 유미 호건씨가 맡았다. 이 때문에 레미 호건 주지사는 ‘한국의 사위’라는 별칭을 얻었다. 지사 취임 후 최초로 한국계 지미 리(한국명 이형모)를 ‘소수계 행정부장관’(Governor’s Office of Minority Affairs)으로 임명하는 등 친한 행보를 보였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때 열린 재미교포 초청 행사에서는 태권도 시범을

보여 유쾌한 분위기를 이끌기도 했다.

이낙연 총리는 전남지사 재임 시절인 2015년 5월 국내에서, 지난해 2월 미국에서 호건 지사와 면담하고 지역 간 협력의 지를 다졌다.

호건 여사의 고향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분사를 옮긴 한국전력은 2015년 10월 메릴랜드주와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산업 포괄적 협력 협정(MOU)을 맺었다.

메릴랜드 사절단은 호건 여사와 우엔 스미스 국무장관,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다음달 2일 방한해 7박8일 국내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초 우호 교류 협정이 약혼이었다면 자매결연은 결혼”이라고 비유하고 “두 지역의 우호가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더불어 일자리 사업

광주시 하반기 도입

광주시가 구직자에게는 직장을, 일손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인력을 지원하는 ‘더불어 일자리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자녀 보육이나 병간호, 학업, 퇴직 등으로 미취업 상태에 있는 구직 희망자를 사업장과 연계해 맞춤형 알선을 지원하고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제고와 어려움을 겪는 일

선 사업장의 생산비 절감 등 경영개선을 돕기 위해 하반기부터 신규로 도입한 프로젝트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 희망자가 하루 4시간이나 6시간(주 25시간 또는 주 30시간) 중 근로시간을 선택한다.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광주시 소재 사업장으로, 소비와 향락업소, 숙박·음식업종 등은 제외한다.

문의 및 참조. 광주시 일자리 원스톱 지원센터. 062-613-5995, 599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농막형 1,350~2,350만원

옵션 선택가능

6평 | 단층형

7,9평 | 복층형

적층, 확장형






www.housecomma.com

하우스콤마
전남 함평군 동함평산단길 19-95

상담 | 062-953-2370

사업분야 | 이동주택(콤마), UBR 욕실, 절수 수도꼭지